

7면에 이어서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 신(생명)과 마귀 신이 병존하고 있어

15. 하늘나라와 웃음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마음속의 천국

하늘나라는 하나님만이 사는 세계이며, 고통, 죽음, 피곤함이 없는 영원한 쾌락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신 자체가 쾌락의 신입니다. 이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웃는 연습'이 필수적입니다. 그 세계는 만날 웃으면서 사는 세계이지, 입을 뚫하고 살면 거기에서 몰래 맞고 쫓겨나게 됩니다.

웃으면 과학적으로도 핏속에서 엔돌핀이 생성되고, 이것이 병균과 암세포를 죽이는 T형파구를 구성합니다. 항상 웃으면 감기도 낫고 암, 위장병, 심지어 늑막염까지 치유되는 '만병통치약' 역할을 합니다. 거짓말 같지만 다리 부러진 것도 계속 웃으면 뼈에서 전액이나 와서 그 뼈가 붙어버립니다.

구세주라는 직업을 가진 이 사람은 이 세상 만민들이 다 계속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계를 건설하려 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웃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 세계는 웃지 않으면 암만 가보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길이 있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나니'라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이루어지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인자의 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인자의 영이 생명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명과 일을 먹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거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쓰여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는 말은 뭐냐하면 성전이 천당하고 조금 달라요? 똑같은 것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천당입니다. 천당이 하늘나라예요. 극락세계가 천국이에요. 극락세계가 따로 있고 무슨 천당 따로 있고 성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계셔야 하늘나라가 되지, 하나님으로 없으면 하늘나라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죽이는 하나님, 이인자의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야 그 마음이 하늘나라가 된다.

성경이 술술 풀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이고 어떤 것이 마귀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라는 게 뚜렷하게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아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아 아니라는 건 죽은 자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소립니다. 죽은 자에게서 영이 떠나간다면 '죽은 자의 하나님아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으려면 성경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4장 14절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예수가 죽어가지고 부활했다는 말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에 욥이 말했듯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야 성

경이 풀어지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 서서 읽지 아니하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주관과 자기 사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결코 풀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16. 성경을 안 자가 한 명도 없었다

6000년간 인류가 흘러오면서 성경을 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봄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봄입니다. 천당이 하늘나라예요. 극락세계가 천국이에요. 극락세계가 따로 있고 무슨 천당 따로 있고 성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은 말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죽이는 하나님, 이인자의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야 그 마음이 하늘나라가 된다

성경이 술술 풀립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이고 어떤 것이 마귀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라는 게 뚜렷하게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8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아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아 아니라는 건 죽은 자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소립니다. 죽은 자에게서 영이 떠나간다면 '죽은 자의 하나님아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믿으려면 성경적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4장 14절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 예수가 죽어가지고 부활했다는 말이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시대 때에 욥이 말했듯이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입장에서 성경을 읽어야 성

으면은 소멸된다는 게 영은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 영이고 뭐고 다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것도 다 헛짓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영은 소멸되어 있지만, 그 죽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의 영이 자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피로 만들어졌죠? 어머니 아버지가 죽었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의 피가 살

17. 하나님은 빛의 신이기에 죽은 사람의 영처럼 환상으로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내다 보면 기독교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봤다, 천사를 봤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 환상이 보여지는 것이 자기 속에 죽은 사람의 영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영이 환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봤다, 천사를 봤다는 게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빛의 신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었습니다. 태초에 아담·해와 하나님도 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 하나님은 마귀에게 점령당해가지고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빛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아요? 모릅니다. 빛이 생명이요, 사람 속에 생명이 하나님과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구성 원리와 그 근간이 되는 '생명'의 기원을 종교적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 부연설명: 그러므로 제사상을 차릴 필요가 없고 내 자신이 음식을 잘 먹는 것이 곧 내 속에 있는 죽은 조상의 영들이 기뻐하면서 잡수시는 것과 같음으로 이것이야말로 수운의 제자 해월 최시형이 말했던 '향아설위(向我設位)'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행하는 것입니다.)

회전한다는 사실은 밝혀냈지만, 그게 왜 돌아가느냐 하는 의문점을 가진 사람이 6,000년 역사 아래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전자가 돌아가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원자핵 속의 중성자가 하나님의 신(생명의 신)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원소, 분자)은 이 생명력에 의해 구성됩니다.

따라서 세상의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신(생명)과 마귀의 신이 병존하고 있으며, 물질이 살아 움직이는 것은 곧 그 안에 생명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첨단 과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첨단과학자들이 모르는 걸이 사람이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신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과학적 한계를 초월한 영적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18. 냉수 한 그릇에도 하나님의 신이 있어

모든 만물에는 생명이 있으며, 이는 곧 하나님의 신이 그 안에 거하심을 의미합니다. 고목나무나 물, 심지어 호랑이와 같은 짐승에게도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수소 원소와 산소 원소가 합쳐져서 물(H₂O)이 되는데, 그 원소 하나님나라 중성자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전자가 빽빽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신이 다 있습니다. 하단에 계속

승리제단의 교리는 형제 몸을 내 몸처럼 여기고 형제를 내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특정 장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시는 물, 우리가 머무는 방 안 등 모든 곳에 분신의 형태로 존재하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죄지를 수 없게 되고 진실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삶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되어 있고 하나님에게 되어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서 백살, 이백살, 천살, 만살, 억만년까지 영원무궁토록 살아서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 구세주(이인자)의 사명과 고통

구세주는 단순히 영회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담당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만민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7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진짜 구세주는 형제 잘못을 내 잘못으로 여깁니다. 우리 승리제단의 교리가 형제 몸을 내 몸처럼 여기고 형제를 내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나는 괴수 죄인으로 여기고 상대방은 하나님으로 여겨라' 이것이 우리제단의 교리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으로 될 수 없기

에 구세주의 '분신'이 각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마귀(사자마귀신)를 죽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경에서 말하는 '생마륵불의 분신 역사'이자 성경의 '이기는 자의 역사입니다.'

20. 예언의 성취와 현실적 증거들

이인자 구세주는 자신이 격암유록 등 고대 예언서에 기록된 정도령이자 진인임을 여러 증거를 통해 제시합니다.

- 지리적 증거: 부천 소사(素砂) 땅에 승리제단이 세워질 것과 진인이 김포(金浦=서호西湖)에서 태어날 것이 500년 전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 시기적 증거: 이인자가 61세 되던 1991년에 승리제단 건물이 준공되고 무지개와 감로이슬성신이 내릴 것이 적중했습니다.

- 풍운조화의 권능: 지난 20년간 대한민국에 태풍이 오지 못하게 막고 여름 장마를 막아 농사가 잘되게 함으로써 한국을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 정치/사회적 변화: 20년 전 예언한 대로 세계 공산주의를 종식시켰으며, 남북전쟁을 막고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여 장차 철도가 유럽까지 연결되는 경제 강국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21. 결론: 자기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라

구원은 구세주가 베풀어 주는 것이지만, 제단에 나오는 별걸음은 스스로의 의지로 마귀를 이겨야 가능합니다. 바쁜 사정과 계으뜸을 피우게 하는 내 인의 마귀를 이기고 승리제단에 나와 이인자의 영을 받을 때, 비로소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고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구세주 이인자는 모든 인간이 죽기 싫어하는 본능을 가진 것은 본래 영생 하던 하나님의 피를 이어받았기 때문이라 설명하며, 이제 구세주를 믿고 따라 다시 본래의 하나님으로 회복되어 영원한 기쁨의 세계인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을 촉구합니다.*

* 위의 내용은 2001년 3월 4일 본부 제단에서 이인자께서 예배 인도하면서 설교하신 말씀인데 문어체로 문장 순화와 과학과 철학 솔루션으로 대체하는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설교 말씀의 원본은 예배 동영상 링크로 대신합니다. <https://www.victor.or.kr/sub401/260112-010304-1/> <https://www.victor.or.kr/sub401/260113-010304-2/>

어리석고 의심많은 인생들을 깨우치기 위한 이기신 하나님의 5대공약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아 아니라 '이기신' 하나님이다

공약①: 공산주의 없애버리겠다

공약④: 풍년 들게 하겠다

공약②: 여름 장마 못지게 하겠다

공약⑤: 남북전쟁 못일어나게 하겠다

공표한 날 : 1981. 8. 18.

